

News

‘고액 신용대출 규제’ 앞두고… 은행, 먼저 더 조인다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한발 앞서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

시중은행들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사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최근 대출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

신용1등급의 위력…주담대 비중 4년새 12%P 늘려 은행대출 절반 차지

매일경제

주담대 이용자 중 신용등급 1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월 말 기준 53%... 금융사 대출이 고소득자·고신용자에게 쏠려... 기존 서민금융제도는 마비...

"전반적으로 고객 신용도가 상승한 데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출받기도 쉽고 자산 증대 의지도 높아 점점 더 1등급에 주담대가 쏠리고 있는 것"

하나은행, 환매중단 독일 헤리티지펀드 50% 가지급

서울경제

하나은행이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절반을 선지급... 하나은행에서 환매 연기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총 510억원 수준...

"운용사 등과 협의를 벌여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업지 매각을 위한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쌀 때 사자…외화예금 사상 최대

한국경제

외화예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달러예금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 엔화예금과 위안화예금 등 다른 주요 외화예금으로도 자금이 몰려...

달러 저가 매수를 노리는 단기 움직임과 약달러 시대에 대비해 엔화 위안화 등을 사들이려는 장기 외화투자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보험사, '자사 GA' 전략 고삐…설계사·수익 확보

굿모닝경제

보험업계가 설계사 이탈을 줄이고 수익성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보험대리점 설립을 적극 논의...

"자회사형 GA는 유연한 인력 운영과 기존 판매 채널 대비 강력한 영업 촉진이 가능하다"

위염·요통에 연 820회 진료…의료 '과소비'에 병드는 실손보험

연합뉴스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평균 진료 횟수는 492회, 보험금 수령액은 2천64만원으로 나타나...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병의원 이용이 실손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는 사실이 외래 다빈도 이용자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라임 판매 증권사 CEO 무더기 중징계 유지되나…25일 증선위 개최

뉴스1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 여부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의 타격 불가피...

제재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증권사, 독립 심사 없이 대체투자 못한다

이데일리

대체투자 딜을 최종 확정할 때 영업 부서로부터 독립된 심사 없이 투자를 마무리할 수 없게 돼... 실적 달성이 투자의 최종 판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을 고려해 대체투자 피해를 줄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